월요광장

농담 한마디와 다시 읽는 오웰의 '1984'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짧은 농담에 웃다가 씁쓸해진다. 요즘은 '현실이 드라마보다 훨씬 드라마 같아서 연속극을 전처럼 안 본다'고 한다. 날카로운 풍자적 의미가 분명해서 그냥 웃고 넘겨지지 않는다. 사실 현실이 드라마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재미'를 준다면 큰일이다. 그만큼 현실이 '변태적'인 불행이며 위험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있을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사람이 실제 죽거나 다치고, 고통을 겪는 일은 없다. 하지만 현실이 드라마를 닮아갈수록 고통과 절망과 혼란은 커진다. 이 농담에 담긴 더 큰 뜻은 현실 왜곡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위험이다. 현실 상황에 길들여지면서 현실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무감각의 위험은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와 감정, 판단의 기준을 외부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거나 단절의 벽 뒤에 파놓은 자기 동굴로 숨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인 인간성의 의미는 상호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인간성이 제거된 세상을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로 묘사했다. 그런데 이 소설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무관한 허구라고 말하기가 힘든 세상이다. 이 작품은 인간의 자유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말살된 전체주의 세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흔히 디스토피아 작품의 원형으로 평가된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인 대립 세계를 의미한다. 개인이 사라지고 집단적 의식과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 곧 디스토피아의 세계다. 개인이 살 수 없는 세계, 서로 다른 '나와 너'의 관계가 불가능한 곳이다. 이런 디스토피아는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이 되는가? 현실적 디스토피아를 생산해내는 집단 또는 조직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통제하고 길들이며 감정과 일상적 생각에도 개입하는가?

오웰은 미래를 앞당겨 경험한 것처럼 날카롭고 정확하게 전체주의 사회를 묘사한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권력 집단의 지도자이자 최고 권력자가 '빅브라더'다. 우리말로는 '큰 형님'이다. 큰 형님! 익숙하고 친근하며 뭐든지 다 알아서 처리해줄 능력자처럼 들린다. 여기서 오웰은 전체주의 이념과 큰 형님의 권력에 맞는 새로운 언어가 왜 중요한가를 역설한다. 언어가 곧 가치와 이념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소설의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다. 그가 '진리부 기록국'에서 맡은 임무는 과거 기록을 조작해서 새롭고 절대적인 진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강령에 따라 신문, 잡지, 책 등을 현 시점에 맞게 조작하고 재생산한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의 진리 기록은 과거 조작이며, 진리의 왜곡이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라는 강제적 언어정책으로 과거를 지우려는 것이다.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다.

주인공 스미스는 금지된 사랑을 하고, 통제를 거부하며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결국 파국을 맞는다. 스미스는 거듭된 고문과 세뇌 끝에 빅 브러더에게 굴종적 복종을 맹세하며, 자신의 마지막 인간성까지 파괴당한다. 끝내 스미스는 생존을 위해서 '자백을 하더라도, 마음만은 그들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라는 마지막 신념마저 배신한다. 오웰이 전체주의 세상에서의 개인의 자유는 육체적 자유는 물론이고 사고와 감정까지 지배당하는 암울한 세상으로 묘사하는 이유다. 이 세상에서는 공동체의 언어와 역사는 철저히 통제되고, 전쟁과 폭력은 평화를 위한 도구로 왜곡된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갖가지 권력, 이 권력 앞의 공포와 무력감의 실체는 무엇인가? 현대의 전체주의적 통제는 각 개인에게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타인의 일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래서 전체주의적 힘에 나 자신이 어떻게 잠식당하는가를 알기 어렵다. 이 억압이 가시적이고 폭력적인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 동의와 선량한 침묵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스스로 자발적 동의자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 자각이 없이는 '큰 형님'은 늘 다양한 얼굴과 목소리로 우리 곁을 맴돌 것이다.

수필의 향기

말바우시장 연가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호박잎 2000원, 단감 3000원.

할머니의 은빛 머리카락이 가을 햇살에 은실은실 나부낀다. 할머니가 깔고 앉은 작은 종이가 빼꼼하게 얼굴을 내민다.

고향이 그립거나 문득 누군가 보고 싶으면 광주 말바우시장으로 간다. 거기, 햇빛 조각 같은 옛것들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인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가던 곳, 맛난 멸치국수가 있고, 이웃집 아저씨가 사주신 국밥이 있고, 달콤한 호떡이 있는 곳이다. 닭이나 돼지, 오리나 강아지도 아닌 말(馬), 무등산 천왕봉·지왕봉·인왕봉을 휘돌아 단박에 이곳에 날아왔다는 장군의 전설이 서린 말바우시장은 이름부터 힘차고 상서롭다.

말바우에 들어선다. 전집, 국밥집, 젓갈집, 홍어집, 철물점, 방앗간, 수선집….

반은 먹거리, 반은 생활용품이다. 또 절반은 가게고 나머지 절반은 고샅, 반은 상품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긴 행렬에 몸을 싣는다.

시장의 매력은 단연 상처에 있다. 사과나 배, 고구마 모두 말짱하다. 허나 조금만 살펴보면 사부자기 흉터 하나쯤 있다. 갈치나 고등어도 이리저리 뒹굴다가 비늘이 벗겨지거나 꽁지가 떨어져 나갔고, 고구마나 감자도 어디 몸 한쪽 벌레에게 준 녀석들이다. 백화점에서 밀려 공사판이나 새벽 인력시장에 모인 이들처럼, 몸에 상처가 있어서 진짜 생을 사는 생들. 어디 상처 없고 흠결 없는 생이 진짜 삶이더냐고 말바우는 묻는 것 같다.

녀석은 또 맨몸 맨살이다. 한겨울에도 옷 입는 법이 없다. 빨갛게 익은 영암 대봉도 무안 바다에서 다리 하나 잘린 낙지도 그냥 대야에 수줍게 맨몸으로 있다. 그러다가 주인 만나면 봉지에 담겨 간다. 저 백화점의 것들처럼 화려한 금관을 두르지도 않고, 튼튼한 상자로 포장하지 않는다. 값비싼 나주 배도 여기선 꾸미는 법 없는 날것이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알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무척 닮았다.

말바우는 자존심 따윈 필요 없는 곳이다. 굳이 자기를 때깔 좋고 싱싱해서 비싸다고 하지 않는다. 좀 으스대다가도 손님이 그냥 갈라치면 금방 제 몸을 낮춘다. 행여 비싸게 팔았다 싶으면 얼른 덤이 몇 개 더 올라간다. 덕담도 떨이도 또 올라가서, 받은 이도 주는 이도 즐거운 곳이다.

글자 '말'처럼 면허시험장(ㅁ)이 있고, 주변 상권이 이리저리(ㅏ) 구불구불(ㄹ) 이어진 고샅 사이로 비록 상처 입었지만 가공도 포장도 없는 곳, 즐거운 흥정이 있고 덤이 있는 곳, 말바우다.

스피커 소리나 격식 대신에 구성진 목소리와 요란한 남도 사투리가 오가고, 누님이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는 곳, 말바우라지만 없는 바위를 떠받치듯, 보이지 않는 정을 주고받는 시장이다.

이들은 담양과 곡성, 장성에서 온다. 해남, 무안에서도 온다. 호박이나 단감은 그 지역 흙에서 뿌리를 박고, 그곳 물로 크고, 그곳 햇빛과 공기로 자란다. 그곳 바다에서 건진다. 그러니 고향 남도의 것들이 통째 오는 곳이다.

2, 4, 7, 9, 서 있는 짝수 둘과 걷는 홀수 둘, 날들이 말 발자국처럼 찍힌 날에는 말바우시장으로 간다. 필요한 물건도 살 무엇도 없지만 우산동으로 간다. 그곳 고샅에 들어서면 나는 조금씩 충전이 된다. 거기 오가는 이들에게 마음껏 옷깃을 스친다. 바구니보다 사람들 마음과 사람의 정으로 나를 채운다. 생의 활력을 꽉 채운다.

거긴 고향의 논밭이 있고, 바다가 출렁이고, 막걸리 한잔 걸친 아버지가 있고, 생선을 이고 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고, 호박잎 2000원, 단감 3000원. 매직으로 쓴 옛것을 앞에 두고 가을 햇살에 졸고 계신 할머니가 있다.

마음이 허전하면 언제나 그곳으로 간다.

기 고

50년만에 철거된 '계림 육교'

이 경 재
전주대 경영대학장

"김재식 지사님의 선물이란다~♪"(1절).

"정시채 시장님의 선물이란다~♪"(2절).

50여년 전 광주 계림초등학교 앞 육교 준공식 날,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이 노래를 불렀다. 며칠 전부터 연습하며 가사를 외웠던 노래이다. 당시에는 한 학급에 8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으며 한 학년에 12개 반이 편성되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아침 반'과 '낮 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등교해 수업했다. 이러다 보니 한 학교 정원이 5000명이 넘었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이 노래를 불렀다. 50년 세월이 지나 나머지 가사는 모두 까먹었지만, 가사에 나오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두 분의 성함만큼은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다(광주가 전남도에서 광역시로 독립되기 전임).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무리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필자가 훗날 전남 도내 모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노래 속 찬양(?)의 대상이었던 그 시장께서 총장으로 부임하신 일이다. 이런 인연은 당시 대학 신문에까지 보도될 만큼 학교 내에서 자주 화젯거리가 되곤 했었다.

육교는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네이버 국어사전)'를 말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론 차량의 흐름을 끊거나 정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컸다고 한다. 사람보다 차량이 우선시 되는 때의 발상들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육교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로 인식이 바뀌었고 도시 환경(미관)도 중요시되면서 새로 육교를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육교들도 철거하는 추세이다. 횡단하는 사람에게 안전은 하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횡단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육교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는 돌아서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부지가 협소하여 경사로를 설치하기 힘든 구간에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설치하기도 한다.

계림 육교는 다른 육교와 차이가 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 올라가서 길을 건넌 후 도로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고 바로 학교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짧은 계단이 하나 더 있고 거기에 쪽문이 있었다. 운동장이 도로보다 높아서 가능한 구조이며 그런 면에서 다른 육교보다 편리성이 더 컸다.

전교 어린이회 간부들은 정문과 육교로 통하는 쪽문에서 주번(주마다 당번이 바뀜)을 서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때도 여학생들과 장난을 치며 육교 쪽문과 정문 사이를 쫓고 쫓겨 다녔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아련하다.

이처럼 남다른 추억과 인연을 담고 있는 계림초등학교 앞 육교가 50여년 만인 지난 4일 밤에 철거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회와 아쉬움이 크다. 특히 필자를 포함한 5남매가 모두 계림초등학교를 졸업한 동문이기까지 하니 5남매가 함께 간직한 마음속 선물을 다시 빼앗기는 듯해서 더욱더 아쉽다.

"새벽닭 홰쳐 운다. 계림 아들아! 노래를 불러라 발맞추어라"(계림 초등학교 교가에서).

육교 준공식 때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시절 친구들도 그립다. 그들도 계림 육교와 함께 많은 추억을 지니고 있을 텐데 철거 소식을 듣고 그때를 회상하며 많이 아쉬워할 것이다. 그리고 육교가 사라진 후에도 그곳에서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 속에 간직될 것이다.

社 說

정원도시 순천, 한국판 'K-디즈니' 꿈꾼다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적인 생태·정원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 인구 28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가 박람회 기간 7개월 동안 순천 인구의 35배에 달하는 981만 명이라는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기적을 낳으면서 성공 비결이 주목받고 있다.

10년만에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폐막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미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넘겨 대박을 예고했다. 입장권과 식음료 판매를 통한 직접 수익금만 333억 원으로 목표 수익금(253억 원)의 130%를 초과 달성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조 5926억 원의 생산 유발과 2만 51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였다. 자치단체를 포함해 510곳의 기관 및 단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순천을 찾았고 서울과 세종 등 32개 지자체가 정원도시를 선언할 정도였으니 파급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짐작이 간다.

성공 비결은 노관규 순천시장의 집념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의 노력, 자발적인 시민 참여 등 이른바 '삼합(三合)'에 있다. 노 시장은 10년 전 세계적인 정원 및 조경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원박람회를 직접 기획한후 다시 시장이 돼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다. 순천시 공무원들도 10년 동안 차곡차곡 전문성을 키워 이젠 전문가만 100여 명에 달할 정도가 됐다. 시민들은 도로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교통 불편 등을 묵묵히 참아내며 힘을 보탰다.

순천정원박람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행사로 평가할만하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성공을 계기로 박람회장 인근에 한국형 디즈니랜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집적단지 사업비로 2000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니 허황된 꿈은 아닌듯 싶다. 정원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입히는 한국판 K-디즈니 구상이 현실이 되길 기원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산 복원 적극 나서야

며칠전 94주년을 맞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시위운동으로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하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국가기념일(11월 3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이나 사적지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중한 역사 유산 복원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학생 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받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참배실에 봉안된 독립운동가는 총 280명이다. 그런데 이 중 독립운동 서훈을 받은 사람은 153명에 불과하고 학생운동의 주역이었던 장재성, 김범수, 정해두 등 127명은 납북, 월북, 정치적 오점 등을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적지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는 옛 광주역 터(현 동부소방서)와 광주 토교(대인시장 동문다리), 옛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일고), 옛 나주역사 등 모두 8곳이지만 이 중 사적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광주일고와 전남여고 뿐이고 나머지는 흔적조차 없다.

지자체의 외면으로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개별 운동가에 대한 기록 등 기초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논문, 연구 성과 등을 한데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연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5·18과 함께 광주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자랑스러운 정신적 유산이자 한국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운동이다. 보훈부는 철 지난 이념적 잣대에서 벗어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역시 관련 연구와 사적지 보존·발굴에 적극 나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유산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한다.

無 等 鼓

스포츠 문화유산

요즘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축구역사박물관이다. 축구스타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을 응원을 하고 있다. 천안시가 조성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축구역사박물관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천안시는 이 박물관을 명실상부한 공립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해 축구역사박물관이 세워진다면 스포츠 종목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탄생한다. 축구역사는 물론 축구화, 유니폼, 우승컵 등이 문화재급으로 수집·전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40년 역사를 헤아리는 한국 축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스포츠계에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쓴 굴렁쇠, '피겨퀸' 김연아의 스케이트, 박세리의 US오픈 우승컵 등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해온 탓에 현대 문화 유산이 멸실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진귀한 '로빈후드 화살'이 탄생했다. 로빈후드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힌 화살을 다른 화살이 뚫는 것을 뜻한다. 양궁 혼성전 준결승에서 안산이 쏜 화살이 김제덕의 화살을 파고들어 화제가 됐다. 아쉽게도 세계 양궁사와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이 희귀 유산이 우리나라에 없다. 세계양궁연맹에 기증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립 스포츠박물관 같은 인프라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었을 소중한 자산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제정해 문화재 보호 확대에 나선 만큼 스포츠는 물론 다양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공립박물관 건립에 전향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